

# 농촌관광객의 지출비용 영향요인 분석\*

김경희\*\* · 황대용<sup>b</sup> · 이해영<sup>c</sup>

<sup>a</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b</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c</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Rural Tourists' Expenditure

Kyung-Hee Kim<sup>a</sup> · Dae Yong Hwang<sup>b</sup> · Hye Young Lee<sup>c</sup>

<sup>a</sup>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sup>b</sup>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sup>c</sup>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rural tourists' expenditure.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fact-finding survey on rural tourism, and analyzed 4,223 cases who had experienced rural tourism for one year in 2018. The 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rural tourists' expenditure.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ural tourists' total expenditure were age, monthly income, number of accompany, length of stay, accommodation type(pension), accommodation type(friend's house/relatives'house), accommodation type(camping), distance to the destination, accompany(family/relatives), accompany(solo traveler), occupation(white color), motivation(daily escape and rest), motivation(new experience).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household, the fewer companions, the longer the length of stay higher the expenditure. As for the accommodation, the pension, motel/inn, hotel/condominium, and recreational forest higher probability of expenditure, while, friend/relative's house or camping higher the probability of less expenditure. The longer the distance to the destination, the solo traveler higher the probability of expenditure in rural tourism.

**Key words:** rural tourism, tourist, expenditure

### 1. 서론

농촌관광은 농촌과 농촌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 다. 농촌관광은 농가소득을 다각화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경희, & 황대용, 2020). 농촌지역에서 농촌관광 사업의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목적지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소윤, 윤준상, &

박덕병, 2015; 윤준상, 김소윤, & 박덕병, 2015). 농촌관광은 특수한 관광시장으로 도시관광이나 일반 관광과는 차이가 있다. 농촌관광객들이 농촌에서 기대하는 것은 고유성 있는 경험과 매력일 것이다. 농촌관광은 농촌관광사업의 주체가 농업인과 농가·마을이라는 점이 일반관광과는 다르다(김현숙, 김소윤, & 이종상, 2016).

관광객이 관광지에 머무르는 것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수반된다. 관광객의 지출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입

주요어: 농촌관광, 관광객, 지출비용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4144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김경희) 전화: 063-238-2630, e-mail: khkim08@korea.kr

원이 되고, 이는 지역경제로 유입된다(Dayour, Adongo, & Taale, 2016). 세계적으로 내국인 관광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관광객의 소비 지출에 주목하여 관광시장 내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정원, & 홍수희, 2017). 관광객의 행동, 특히 관광객의 지출패턴은 관광에 대한 경제적 접근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변수 중 하나이다(García-Sánchez, Fernández-Rubio, and Collado, 2013). 따라서 학자, 관리자 및 정책 결정자들은 어떤 요인이 관광객의 소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이 관광객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Marrocu, Paci, & Zara, 2015).

실제로 개인의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역할을 측정하는 것은 관광지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Abbruzzo, Brida, & Scuderi, 2014). 관광객의 지출은 관광지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Alegre, Cladera, & Sard, 2011). 따라서 관광객의 지출은 관광지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마케팅 및 정책적 전략을 개발하여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Nicolau, & Ma's, 2005). 관광객의 소비 행동과 영향요인을 이해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관광객의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Abbruzzo, Brida, & Scuderi, 2014).

우리나라 국민의 농촌관광 경험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03년 8.10%였던 것에서 2018년에는 41.14%로 증가했다(농촌진흥청, 2019a). 농촌관광객의 총지출액은 1인당 1회 평균 약 1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식비가 약 31%, 교통비 약 22%, 숙박비 약 18%, 농특산물 구입비 약 14%, 프로그램 참가비가 약 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9a).

농촌관광의 경제적 성과에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김경희, & 황대용, 2020). 농촌관광 사업의 운영 주체는 마을주민 또는 농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사업체와는 운영형태가 다른데, 농촌관광 사업자들의 연간 실제 운영 일 수는 평균 226일이며,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곳이 약 95%로 나타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9b). 농촌관광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객의 지출 특성을 분석하고 농촌관광 사업의 특성에 기반하여 효과적으로 관광객의 지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원, & 홍수희(2017)는 국내 관광지에서 매우 불만족한 관광객의 지출액이 가장 높아 가성비가 국내 관광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농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도 최우선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가격 적절성과 즐길거리로 나타나 가격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2019a).

농촌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농촌관광 수익 극대화 전략을 위해 실무적으로나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관광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관광객의 지출 비용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농촌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농촌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농촌관광객의 소비행동을 이해하고 농촌관광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관광객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관광 분야에서 지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농촌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과 마케팅 전략을 위해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2. 선행연구

경제적 이익의 발생은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주요한 동력이다. 관광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왔다(Craggs, & Schofield, 2009).

관광 의사 결정은 참여 결정, 목적지 선택, 지출, 체류 기간 등을 포함하는 다단계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Dellaert, Ettema, & Lindh, 1998). Legohérel, & Wong(2006)는 지출이 관광객의 소비행동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로 소비량 보다 지출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관광 지출은 오랫동안 관광 분석의 필수 구성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관광 지출의 영향요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Wu, Zhang, & Fujiwara, 2013).

관광객의 지출은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벗어난 환경에서 발생하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지출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동우, & 부소영, 2001).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과 관련된 변수로 경제적 제약, 사회인구적 특성, 여행관련 및 심리적 특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Marrocu et al., 2015). 경제적 변수 중 소득은 가장 중요하며 관광객 지출 영향요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변수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성의 갖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Wang, & Davidson, 2010b). 관광객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직업, 거주지, 국적, 민족, 가구의 규모와 구성 등이 있으며, 여행관련 변수로 여행 인원 수, 체류 기간, 최초/반복 방문자, 교통수단, 결제 수단, 숙박 유형, 방문장소 수, 여행 유형, 여행 목적, 중간에 다른 관광지 방문, 정보습득, 예약 유형 등을 포함한다(Wang, & Davidson, 2010a). 심리학적 변수로는 관광객의 평가, 관광동기, 관광객의 기호 등이 포함되고 있다(Smolčić Jurdana, & Soldić Frleta, 2017).

Brida, & Scuderi(2013)은 관광객의 지출 분석과 관련하여 1977년부터 2012년까지의 86개의 논문과 354개의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설명변수는 소득,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여행관련 변수이며, 분석방법은 고전적 회귀기법(OLS, 분위수, Tobit, 2단계, 로지스틱 회귀분석 포함)을 통해 주로 분석되었음을 제시하였다.

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희찬, & 김현(2005)은 제주와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11개 지역별 가구수를 바탕으로 층화표본할당을 통해 1,265명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지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Double-Hurdle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참여인원, 숙박기간, 자녀동반, 혼합형관광 선호그룹, 소득, 수도권 거주가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운일(2012)은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이천 쌀 문화축제 방문객 536명과 진천 쌀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 515명을 대상으로 지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두 지역 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 방문객의 지출 영향요인은 연령, 소득, 거주지(서울 및 기타), 직업(화이트칼라), 성장지역(도시), 동반자(가족), 지역축제 평가속성(프로그램), 지역축제 평가속성(가격)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옥영, & 한진영(2013)은 강릉 단오축제 방문객 181명을 대상으로 소비지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월소득, 동반자 수, 연령, 축제 참가일 수, 체류기간, 거주지 수도권 여부, 성별, 직업, 결혼여부, 방문목적, 동반자 유형, 숙박유형(자비숙박 여부)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출액인 종속변수는 총지출액, 식음료비, 숙박비, 쇼핑비, 교통비, 오락비로 구성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총지출액에는 월소득, 성별, 거주지(수도권), 참가일 수, 체류기간, 자비숙박이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결혼여부, 동반자 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비에는 월소득, 성별, 연령, 거주지(수도권), 동반자 수가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숙박비에는 월소득, 연령, 자비숙박이 정(+)의

영향을, 동반자 수와 동반자 유형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비에는 월소득, 결혼여부, 거주지(수도권)가 정(+)의 영향을, 동반자 수와 동반자 유형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에는 월소득, 연령, 거주지(수도권)이 정(+)의 영향을, 결혼여부와 동반자 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비에는 월소득, 체류기간과 자비숙박, 방문목적이 정(+)의 영향을, 직업(고용상태), 연령, 거주지(수도권), 참가일 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옥(2015)은 2014년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9,933명의 해외관광의 수요 및 지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연령, 직업, 가구 구성원, 가구 내 세대, 주택소유여부, 노인가구, 맞벌이 가구, 월소득, 모자가구, 일반가구, 가구 내 취업인원수 등을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해외관광 지출금액을 적용하였다. Double-hurdle 모형과 Tobit 모형을 적용하여 해외 관광 지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Double-hurdle 모형에서는 결혼여부(기혼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bit 모형에서는 결혼여부(기혼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40대 이상의 연령, 주택소유, 맞벌이가구, 월소득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성원 수, 노인가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형근, & 이희찬(2020)은 한국을 방문한 무슬림 관광객 1,737명을 대상으로 지출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관광특성(방문목적, 여행형태, 동반자 유형, 혼자여행, 방한경험, 여행만족도)로 구성하였으며, 지출액인 종속변수는 총지출, 쇼핑, 식음료, 현지 교통비 및 문화엔터테인먼트 지출액으로 구성하였다. T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총지출액에는 성별, 연령, 혼자여행, 방한경험이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쇼핑 지출액에는 방문목적, 방한경험, 여행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식음료 지출액에는 성별, 여행형태, 혼자여행이 정(+)의 영향을, 교통비에는 성별과 여행형태가 정(+)의 영향을, 동반자 유형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엔터테인먼트 지출액에는 방문목적과 여행형태가 정(+)의 영향을, 성별, 동반자 유형, 혼자여행, 방한경험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관광객의 지출비용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icker, Hallmann, & Zhang(2012)는 독일에서 열린 3개의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와 관중을 1,156명을 대상으로 지출 영향요인과 재방문의도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일일 지출액과 총지출액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일 지출액에

는 성별(여성), 소득, 마라톤선수, 코치나 지원자, 도시(Cologne)가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총지출액에는 소득, 마라톤선수, 도시(Cologne)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국적(독일인)은 부(-)의 영향을 미쳐 외국인이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u, Zhang, & Fujiwara(2013)은 일본의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65.5%가 2009에 관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ogit 모델과 Scobit 모델을 통해 관광 참여 및 지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두 모형 모두 관광객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여부와 거리가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 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관광 참여와 관광 지출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모델링에서 Scobit 모델이 Logit 모델보다 우수함을 제시하였다.

Smolčić Jurdana, & Soldić Frleta(2017)는 크로아티아의 관광객 523명을 대상으로 지출비용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 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관광행동 특성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품질과 환대, 시설의 다양성, 정보, 목적지 보존 및 유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총 지출액(숙박비, 식음료비, 문화오락비,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쇼핑, 견학 및 기타 지출액)을 적용하였다. OLS(ordinary least square)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 숙박유형(호텔), 만족도(시설의 다양성)가 지출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재방문과 체류기간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관광객의 지출비용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석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농촌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광행동 특성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관광객의 총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 3. 연구방법

#### 3.1. 측정도구

농촌관광객의 지출비용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배형근, & 이희찬, 2020; 정옥영, & 한진영, 2016)를 바탕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월소득, 직업, 교육 수준)과 관광행동 특성(동반자 수, 체류기간, 숙박시설, 거리, 동반자, 농촌관광 동기)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농촌관광객 1인이 1회의 농촌관광 기간 동안 현지에서 지출한 총 지출비용으로 유류대 등 왕복교통비, 식사 등 먹거리 비용, 숙박비용, 프로그램 참가/체험 비용, 지역 농·특산물 구입 비용,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표 1> 관광객 지출비용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	지출비용 영향요인
이희찬, & 김현 (2005)	농촌관광객	참여인원, 숙박기간, 자녀동반, 혼합형관광 선호그룹, 소득, 수도권 거주자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백운일 (2012)	지역축제 방문객	연령, 소득, 거주지(서울 및 기타), 직업(화이트칼라), 성장지역(도시), 동반자(가족), 지역축제 평가속성(프로그램), 지역축제 평가속성(가격)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정옥영, & 한진영 (2013)	지역축제 방문객	총지출액에 월소득, 성별, 거주지(수도권), 참가일 수, 체류기간, 자비숙박이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결혼여부, 동반자 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광욱 (2015)	해외관광객	Double-hurdle 모형에서는 결혼여부(기혼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bit 모형에서는 결혼여부(기혼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40대이상의 연령, 주택소유, 맞벌이가구, 월소득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성원 수, 노인가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배형근, & 이희찬 (2020)	국내 무슬림 관광객	총지출액에는 성별, 연령, 혼자여행, 방한경험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Wicker, Hallmann, & Zhang (2012)	독일 마라톤대회 참가자와 관중	총지출액에는 소득, 마라톤선수, 도시(Cologne)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국적(독일인)은 부(-)의 영향을 미쳐 외국인이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Wu, Zhang, & Fujiwara (2013)	일본의 관광경험 소비자	Logit 모델과 Scobit 모델을 통해 관광 참여 및 지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두 모형 모두 관광객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여부와 거리가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 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Smolčić Jurdana, & Soldić Frleta (2017)	크로아티아 관광객	가계소득, 숙박유형(호텔), 만족도(시설의 다양성)가 지출비용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재방문과 체류기간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3.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농촌진흥청, 2019a)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통계를 바탕으로 표본을 설계하였는데, 17개 광역 시·도를 제곱근비례분법을 적용하고, 각 시도별 세부 층별에 대해 연령과 성별 비례분법을 적용하였다. 조사대상 연령은 만 15세 이상이며 최종적으로 10,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25일까지이며, 전체 조사대상자 중 2018년 1년 동안의 농촌관광 경험자 4,223명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경험에 대한 문항을 조사하였다.

### 3.3. 분석방법

명목척도로 측정된 성별, 직업, 숙박시설, 동반자는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018년 1년 동안 농촌관광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4,223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지출비용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극단치, 선형성, 오차항 분포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표 2>와 같다. 서열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지 않고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2> 투입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 변인	총지출액	2018년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농촌관광에서의 총지출액
	성별	남성, 여성(참조변인)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연령	서열척도(만 나이, 개방형)
	월소득	가구의 월평균소득, 서열척도, 1=200만원 이하, 2=200~400만원, 3=400~600만원, 4=600~800만원, 5=800만원 초과
	직업	1=자영업, 2=판매/서비스직, 3=생산직, 4=사무직, 5=전문자유직, 6=전업주부, 7=학생(참조변인)
	교육수준	서열척도.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졸/재학, 3=고졸/재학, 4=전문대졸/재학, 5=대학교 졸업/재학, 6=대학원 졸/재학
독립 변인	동반자 수	서열척도(개방형)
	체류기간	서열척도(개방형)
관광 행동 특성	숙박시설	1=농촌민박(참조변인), 2=기타 숙박시설(펜션, 모텔/여관, 호텔/콘도, 휴양림), 3=친구/친척집, 4=야영/캠핑
	거리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서열척도
	동반자	1=가족/친지, 2=친구/연인/선후배(참조변인), 3=단체, 4=혼자
	농촌관광동기	1=일상탈출/휴식, 2=유대관계 증진, 3=즐길거리, 즐거움을 찾아서, 4=새로운 경험, 5=가족화합, 6=농촌 자연경관 감상(참조변인)

## 4. 분석결과

### 4.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가 20.6%, 30대와 50대가 각각 19.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주부가 11.8%, 학생이 10.0%, 자영업이 9.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남성이 52.0%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은 200~400만원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400~600만원이 31.0%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재학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재학이 18.9%, 대학원졸/재학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동반자 수는 2명이 26.5%였으며, 4명이 24.6%, 3명이 21.5%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은 펜션 등이 81.9%, 농촌민박이 18.5%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당일여행이 44.8%, 1박이 41.3%로 나타났다. 동반자는 가족/친지가 68.4%, 친구/연인/선후배가 18.0%, 혼자가 8.1% 순으로 나타났다.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1~2시간 미만이 30.2%, 2~3시간 미만이 26.2%, 3~4시간 미만이 19.3%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동기는 일상탈출/휴식이 47.1%, 새로운 경험이 10.8% 순으로 나타났다.

### 4.2. 농촌관광객의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농촌관광객의 총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은  $F=68.722(p<.0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2$ 은 .285

〈표 3〉 응답자의 특성(N=4,223)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	10대	238(5.6)	직업	자영업	396(9.4)	
	20대	622(14.7)		판매/서비스직	208(4.9)	
	30대	801(19.0)		생산직	271(6.4)	
	40대	869(20.6)		사무직	1,767(41.8)	
	50대	804(19.0)		전문자유직	355(8.4)	
	60대 이상	889(21.1)		전업주부	500(11.8)	
월 소득	200만원 이하	533(12.6)	성별	학생	422(10.0)	
	200~400만원	1,419(33.6)		남성	2,195(52.0)	
	400~600만원	1,309(31.0)		여성	2,028(48.0)	
	600~800만원	537(12.7)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1.3)
	800만원 초과	425(10.1)			중졸/재학	88(2.1)
1명	342(8.1)	고졸/재학	798(18.9)			
동반자 수	2명	1,119(26.5)	숙박 시설	전문대졸/재학	440(10.4)	
	3명	908(21.5)		대졸/재학	2,373(56.2)	
	4명	1,039(24.6)		대학원졸/재학	470(11.1)	
	5명 이상	811(19.2)		농촌민박	481(18.5)	
	당일여행	1,892(44.8)		기타(펜션 등)	2,131(81.9)	
체류기간	1박	1,744(41.3)	농촌관광 동기	친구/친척집	424(16.3)	
	2박	456(10.8)		야영/캠핑	312(12.0)	
	3박	93(2.2)		일상탈출/휴식	1,989(47.1)	
	4박 이상	38(0.9)		유대관계 증진	185(4.4)	
	1시간 미만	304(7.2)		즐거거리, 즐거움을 찾아서	752(17.8)	
거리	1~2시간 미만	1,275(30.2)	새로운 경험	456(10.8)		
	2~3시간 미만	1,106(26.2)	가족화합	367(8.7)		
	3~4시간 미만	815(19.3)	농촌자연경관감상	182(4.3)		
	4시간 이상	722(17.1)				
	가족/친지	2,887(68.4)				
동반자	친구/연인/선후배	759(18.0)				
	단체	232(5.5)				
	혼자	342(8.1)				

로 나타났다.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관광객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t=4.154$ ), 월소득( $t=5.373$ ), 직업\_사무직( $t=2.988$ ), 체류기간( $t=19.939$ ), 숙박시설\_펜션 등( $t=10.878$ ), 목적지까지의 거리( $t=15.463$ ), 동반자\_혼자( $t=4.281$ ), 농촌관광 동기\_일상탈출/휴식( $t=2.610$ ), 농촌관광 동기\_새로운 경험( $t=2.277$ )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동반자 수( $t=-5.248$ ), 숙박시설\_친구/친척집( $t=-2.234$ ), 숙박시설\_야영/캠핑( $t=-4.538$ ), 동반자\_가족/친지( $t=-3.773$ )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동반자 수가 적을수록, 체류기간이 길수록,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동반자가 친구/연인/선후배인 경우에 비해 혼자 방문한 경우, 숙박시설이 농촌민박인

경우에 비해 펜션, 모텔/여관, 호텔/콘도, 휴양림인 경우, 직업이 학생인 경우에 비해 사무직인 경우, 농촌관광 동기가 농촌 자연경관 감상인 경우에 비해 일상탈출/휴식이나 새로운 경험인 경우 지출비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숙박시설이 친구/친척집이나 야영/캠핑인 경우 농촌민박에서 숙박하는 경우에 비해 지출비용이 적어질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동반자는 가족/친지인 경우 친구/연인/선후배와 방문한 경우에 비해 지출비용이 적어질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검사하였다. 이 값은 각 회귀계수의 변량 증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대한 지수가 된다. 상승변량(VIF)값이 1에 접근할 때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10 이상이면 다중공선

(표 4) 농촌관광객 지출비용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ρ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379.906	8297.315		1.854	.064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_남성	1985.317	2656.546	.011	.747	
	연령(만)	377.529	90.890	.063	4.154	.000***
	월소득	5790.542	1077.704	.074	5.373	.000***
	직업					
	자영업	4541.165	5022.815	.015	.904	.366
	판매/서비스직	8069.920	6123.405	.020	1.318	.188
	생산직	2430.824	5605.859	.007	.434	.665
	사무직	10609.041	3551.042	.059	2.988	.003**
	전문자유직	10138.953	5185.658	.032	1.955	.051
	전업주부	4522.570	5069.092	.017	.892	.372
	교육수준	-757.740	1220.449	-.009	-.621	.535
	동반자 수	-1744.915	332.515	-.082	-5.248	.000***
	체류기간	35097.718	1814.869	.311	19.339	.000***
	관광행동 특성	숙박시설				
기타(펜션 등)		30241.390	2781.363	.168	10.873	.000***
친구/친척집		-9211.236	4123.549	-.031	-2.234	.026*
야영/캠핑		-21174.018	4666.404	-.062	-4.538	.000***
거리		13843.159	895.270	.215	15.463	.000***
동반자						
가족/친지		-12106.882	3209.139	-.063	-3.773	.000***
단체		-1196.812	6516.299	-.003	-.184	.854
혼자		22567.224	5271.542	.067	4.281	.000***
농촌관광 동기						
일상탈출/휴식		10339.613	3961.687	.058	2.610	.009**
유대관계 증진		-757.075	6735.281	-.002	-.112	.911
즐길거리, 즐거움을 찾아서		3637.984	4514.397	.016	.806	.420
새로운 경험		13018.433	5050.820	.045	2.577	.010*
가족화합	7715.330	5413.000	.025	1.425	.154	

F=68.722(p<0.001), R<sup>2</sup>=.290 수정된 R<sup>2</sup>=.285

\*p<0.05, \*\*p<0.01, \*\*\*p<0.001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이학식, & 임지훈, 2008), 값이 모두 2.9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시사점

농촌관광은 도시민에게 쉼과 휴식, 일상을 벗어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농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관광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객의 소비행동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농촌관광객의 지출비용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농촌관광객의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연령, 월소득, 직업\_사무직, 체류기간, 숙박시설\_펜션 등, 목적지까지의 거리, 동반자\_혼자, 농촌관광 동기\_일상탈출/휴식, 농촌관광 동기\_새로운 경험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동반자 수, 숙박시설\_친구/친척집, 숙박시설\_야영/캠핑, 동반자\_가족/친지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촌관광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배형근, & 이희찬, 2020; 이광욱, 2015)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높고, 숙박비나 농특산물 구입 등 지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 결과로 판단된다.

월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촌관광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배형근, & 이희찬, 2020; 이광옥, 2015; 이희찬, & 김현, 2015; 정옥영, & 한진영, 2013; Smolčić Jurdana, & Soldić Frleta, 2017; Wicker, Hallmann, & Zhang, 2012)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촌관광에서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단가나 음식, 체험의 지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학생에 비해 농촌관광 지출액이 높을 확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화이트칼라 직장인이 지역축제 지출과 관련이 있었던 선행연구(백운일, 2012)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사무직 직장인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관광을 통해 일상을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숙박시설 등에 더 지출하고, 농특산물 구입 등에도 보다 구매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체류기간의 경우 여행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촌관광 지출액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이희찬, & 김현, 2015; 정옥영, & 한진영,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1회의 농촌관광에서 당일여행 보다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숙박시설이 전문 숙박업소(펜션, 모텔/여관, 호텔/콘도, 휴양림)일 경우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농촌민박에 비해 전문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비교적 지출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농촌관광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류비, 통행료 등 교통비가 증가하므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을 혼자하는 경우 동반자가 친구/연인/선후배인 경우에 비해 지출액이 많을 확률이 높으며, 동반자 수가 적을수록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선행연구(정옥영, & 한진영, 2013)와 유사한 결과이다. 혼자 여행하는 경우 교통비 등 비용을 혼자서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1인당 지출액을 기준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며, 동반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줄 수 있으나, 동반자 수가 적으면 그만큼 1인당 지출액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반자가 가족/친지인 경우 친구/연인/선후배와 함께 방문한 경우보다 지출액이 높을 확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보다는 친구/연인/선후배와 방문했을 때 외식비 등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농촌관광 동기가 일상탈출/휴식이거나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인 경우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동기를 가진 사람에 비해 지출액이 높을 확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려는 동기를 가진 관광객 보다는 일상탈출/휴식이나 새로운 경험을 찾는 관광객들이 농촌관광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과 체험거리들을 즐기고자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숙박시설이 친구나 친척집, 야영이나 캠핑인 경우 총지출액이 농촌민박에서 숙박하는 경우보다 감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나 친척집, 야영이나 캠핑인 경우 숙박비, 식비 등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관광과 달리 농촌관광 지출 특성의 차이는 숙박이 친구나 친척집, 야영이나 캠핑으로 숙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지출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동반자가 가족/친지인 경우 친구/연인/선후배인 경우에 비해 지출에 적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동반 농촌관광객이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쳤던 이희찬, & 김현(2005)의 연구, 동반자가 가족인 경우 지역축제 방문객의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쳤던 백운일(2012)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소득이 높은 관광객들이 농촌관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 기념품과 향토음식 상품 등을 잘 개발하여 구매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역 내는 물론 인근의 자원들을 네트워크하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상탈출/휴식 동기를 가진 농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관광 상품, 새로운 경험을 찾는 동기를 가진 농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고유성 있는 관광상품 등 관광객의 동기를 고려한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도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농촌다움과 쾌적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농촌숙박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촌숙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관광에서도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1인용 숙박시설과 식사, 소포장 농특산물 등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격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촌관광객의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관광객의 지출비용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광



행동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농촌관광객의 소비행동을 파악 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농촌관광객의 지출비용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적용하여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농촌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심리적 특성인 농촌관광 동기를 지출 영향요인에 포함한 점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다.

정책적으로는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시 농촌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자원을 투입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지향적으로 사업의 효과와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객의 만족도 등 농촌관광 품질에 대한 인식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농촌관광객의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학적 특성, 품질인식 등 다양한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고동우, & 부소영. (2001). 기획축제 참가자의 소비지출 기제 탐색. *소비자광고* 2(2), 61-79.
2. 김경희, & 황대용. (2020). 농촌관광 사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7(2), 65-74. doi:10.12653/jecd.2020.27.2.0065
3. 김소윤, 윤준상, & 박덕병. (2015). 농촌관광마을 경쟁전략. *농촌지도와 개발* 22(3), 301-319. doi:10.12653/jecd.2015.22.3.0301
4. 김현숙, 김소윤, & 이종상. (2016). 농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촌지도와 개발* 23(3), 285-293. doi:10.12653/jecd.2016.23.3.0285
5. 농촌진흥청. (2019a).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완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6. 농촌진흥청. (2019b). 2018 농촌관광 사업자 실태조사. 완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7. 배형근, & 이희찬. (2020). 방한 무슬림 관광객의 지출 영향요인 분석. *관광학연구* 44(3), 109-122. doi:10.17086/JTS.2020.44.3.109.122
8. 백운일. (2012). Tobit 모형을 이용한 지역축제 방문객의 지출 영향요인: 두 지역 쌀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9), 479-488. doi:10.5392/JKCA.2012.1

- 2.09.479
9. 윤준상, 김소윤, & 박덕병. (2015). 관광목적지로서의 농촌관광마을의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 22, 135-144. doi:10.12653/jecd.2015.22.2.0135
10. 이광욱. (2015). 해외관광 수요함수추정의 모형비교 및 지출영향요인 연구. *관광연구저널* 29(12), 105-117.
11. 이정원, & 홍수희. (2017). 관광객의 소비지출과 관광만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9(11), 55-71.
12. 이학식, & 임지훈. (2008). *SPSS 14.0 매뉴얼* 과주: 법문사.
13. 이희찬, & 김현. (2005). 농촌관광 지출의 영향요인과 추정. *농어촌관광연구* 12(1), 159-185.
14. 정옥영, & 한진영. (2013). 2013 강릉단오제 관광객의 소비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93-100. doi:10.14400/JDPM.2013.11.12.93
15. Abbruzzo, A., Brida, J. G., & Scuderi, R. (2014). Determinants of individual tourist expenditure as a network: Empirical findings from Uruguay. *Tourism Management*, 43, 36-45. doi:10.1016/j.tourman.2014.01.014
16. Alegre, J., Cladera, M., & Sard, M. (2011). Analysing the influence of tourist motivations on tourist expenditure at a sun-and-sand destination. *Tourism Economics*, 17(4), 813-832. doi.org/10.5367/te.2011.0063
17. Brida, J. G., & Scuderi, R. (2013). Determinants of tourist expenditure: A review of microeconomic model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6, 28-40. doi:10.1016/j.tmp.2012.10.006
18. Craggs, R., & Schofield, P. (2009). Expenditure-based segmentation and visitor profiling at the quays in Salford, UK. *Tourism Economics*, 15(1), 243-260. doi:10.5367/00000009787536753
19. Dayour, F., Adongo, C. A., & Taale, F. (2016). Determinants of backpackers' expenditure.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17, 36-43. doi:10.1016/j.tmp.2015.11.003
20. Dellaert, B. G. C., Ettema, D. F., & Lindh, C. (1998). Multi-faceted tourist travel decisions: A constraint-based conceptual framework to describe tourists' sequential choices of travel components. *Tourism Management*, 19(4), 313-320. doi:10.1016/S0261-5177(98)00037-5
21. García-Sánchez, A., Fernández-Rubio, E., & Collado, M. D. (2013). Daily expenses of foreign tourists, length of stay and activities: Evidence from Spain. *Tourism Economics*, 19(3), 613-630. doi:10.5367/te.2013.0218
22. Legohérel, P., & Wong, K. K. F. (2006). Market

- segmentation in the tourism industry and consumers' spending: What about direct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20(2), 15-30. doi.org/10.1300/J073v20n02\_02
23. Marrocu, E., Paci, R., & Zara, A. (2015).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tourist expenditure: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Tourism Management*, 50, 13-30. doi:10.1016/j.tourman.2015.01.006
  24. Smolčić Jurdana, D., & Soldić Frleta, D. (2017). Satisfaction as a determinant of tourist expenditure. *Current Issues in Tourism*, 20(7), 691-704. doi:10.1080/13683500.2016.1175420
  25. Marrocu, E., Paci, R., & Zara, A. (2015).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tourist expenditure: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Tourism Management*, 50, 13-30. doi:10.1016/j.tourman.2015.01.006
  26. Nicolau, J. L., & Ma's, F. J. (2005). Heckit modelling of tourist expenditure: Evidence from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16(3), 271-293. doi:10.1108/09564230510601404
  27. Wang, Y., & Davidson, M. C. G. (2010a). A review of micro analyses of tourist expenditure. *Current Issues in Tourism*, 13(6), 507-524. doi:10.1080/13683500903406359
  28. Wang, Y., & Davidson, M. C. G. (2010b). Chinese holiday makers' expenditure: Implications for marketing and management.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and Management*, 19(4), 373-396. doi:10.1080/19368621003667101
  29. Wicker, P., Hallmann, K., & Zhang, J. J. (2012). What is influencing consumer expenditure and intention to revisit? An investigation of marathon events. *Journal of Sport & Tourism*, 17(3), 165-182. doi:10.1080/14775085.2012.734058
  30. Wu, L., Zhang, J., & Fujiwara, A. (2013). Tourism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 behaviour: Analysis using a scobit based discrete-continuous choice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40, 1-17. doi:10.1016/j.annals.2012.09.002



Dr. Kyung-Hee Kim is a Researcher a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field is rural tourism.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E-mail: khkim08@korea.kr

phone: 82-63-238-2630



Dr. Dae-Yong Hwang is a Senior Researcher a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is research fields are rural tourism and traditional resources development.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E-mail: hdy@korea.kr

phone: 82-63-238-2628



Lee, Hye Young is a Researcher a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field is rural tourism.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E-mail: mysh5066@korea.kr

phone: 82-63-238-2636